

## 지구 위에 평화가 깃들 날은 언제일까?

동서 냉전 구도가 무너진 이후  
지구 위에는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21세기로 들어서며  
세계는 지난 어느 때보다 평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미국 테러 참사—  
그것은 세계인들에게  
지구 위의 평화가 아직은 머나먼 일임을 깨우쳐주었다.

폭음을 일으키며 떨어지는 비행기  
화염에 휩싸인 채 무너지는 건물들  
공포에 질린 비명 소리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들…  
그것은 바로 전쟁이었다.

그것은 여전히 인류가  
폭력의 위협 앞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었다.  
어떤 민족이나 나라도  
비상 사태에 휘말릴 수 있음을 일깨워주었다.  
지구 위에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